



매니페스토란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운동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따뜻한 약속과 용기 있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입니다.

선거매니페스토

선거매니페스토(elect manifesto)는 출마자가 과거에 당을 여러 번 옮겨 다닌 '철새' 정치인이었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다든가, 과거에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기치와 철학,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매니페스토 도서나 매니페스토 공약서에 담아서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선거매니페스토운동은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는 과정까지 상시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반영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선거과정에서의 정책공약이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선 이후에도 실천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며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생활문화 매니페스토

생활문화매니페스토(life-culture manifesteto)는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추호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으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바로잡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소소한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합의하는, 따뜻한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을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이처럼 생활문화 매니페스토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규율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약자를 비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사회적책임 매니페스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매니페스토(economy manifesto)는 사내약속실천과 민주적인 운영, 소비자와의 공적인 약속,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약속, 지역 사회 기여에 대한 따뜻한 약속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방식으로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넘어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홍보를 위한 이벤트가 아닌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운동입니다.

여러나라의 매니페스토

영국에서는 1834년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책임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1997년에는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어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미국은 1994년 의회선거 때 공화당 하원의장이었던 뉴트킨크리치는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10개의 정책을 발표하여 국민에게 제시했고 크게 성공을 거둬 40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매니페스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와 다르게 네거티브 공격을 되도록 자제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위주의 선거를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등장하였으며 2003년 공직선거법 개정 후 총선에서 각 정당도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